■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남은 것은 진정성　　성경: 레위기 26장 38-46절

Tag:

38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 같이 쇠잔하리라

40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41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4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6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 26:38-46)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다.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첨가된 구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언이니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운명론을 주장하지 않고 예언조차도 운명이 아니다. 다만 예언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예언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축복이고 그 다음이 경고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이 두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고 설명이 길다.) 더불어 기타 계명들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1.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
2. 평화를 주시어 안전하게 그 땅에 거하게 하신다.
3. 재앙이나 칼이(강도) 횡행하지 못하게 하신다.(우환질고)
4.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백이 일만을 이겨낼 것이다.
5. 너희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
6. 묵은 곡식을 치워내고 새 곡식을 먹게 하신다.
7. 성막을 세우고 내 마음으로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 26:13)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않되

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인생 중에 이 경고를 잘 새겨듣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가?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이다.

15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먼저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한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고리타분하게 여기며,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하게 여긴다. 한마디로 말씀이 더럽힘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는 열정이 식는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법도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기 싫은 소리로 분류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마귀가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마귀의 계략에 머리를 끄덕이니까 발생하는 증상이다.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들이 다윈이, 니체가, 마르크스가 유식한 소리를 하니까 다들 그러려니 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책을 샅샅이 뒤져서 그 속을 파헤쳐 보이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구절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마치 바람빠진 풍선처럼 되어 버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에도 각종 거짓말들이 버젓이 메스미디어에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불평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저주를 좋아하시고 그 벌이 너무 크고 무서운 분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충분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악하여 죄를 너무 많이 범한다고 판단하신다. 그리고 그 죄의 댓가는 너무 크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단번에 집행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차적으로는 깊이 깨닫기에 충분한 형벌을 집행하신다.
1. 재앙과 병을 주며 생명력이 떨어진다.
2. 일한 댓가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
3. 대적과 싸워 패배하게 된다.
4. 미워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5.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게 된다.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강력한 형벌을 집행하신다. 가중처벌 하신다는 뜻이다.
1.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수확이 적다. 결국 가난해 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북한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2.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여 재산에 손해가 되고, 자녀들이 노략을 당하게 된다.
3. 전염병이 돌게 된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큰 가중처벌이 집행된다.
1. 전쟁이 나고 너희는 원수의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
2.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데 이 형벌은 자신이 깊이 깨닫고 그

형벌이 마땅한 벌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이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정도로 벌을 받는 것은 오히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니 하루라도 빨리 이 벌을 달게 받아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여기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41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만약 이처럼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를 용서하시고 형벌의 기한이 차면 이제 비로소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그들이 남은자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은 결코 마귀가 훼방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곳 원수의 나라에서도 남은자를 뽑아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남은자는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남겨진 자들을 추려 내신다. 알곡을 모아 곳간안에 두시고 쭉정이는 불에 넣어 사르신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레위기 시대로부터 약 3500여년 지났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되었다. (지난 1000년 동안 말씀은 사장되다시피 했었다.)

말씀을 되찾기는 개신교가 유일하였다. 지금도 타종교의 경전은 성경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 회복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말씀의 회복으로 인한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도 세계는 크게 변하여 종교개혁으로 되찾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은 훼손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훼손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와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시대정신을 이끌어온 사상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기타 이슬람권의 코란, 힌두교의 베다, 동남아시아의 불교 경전, 유교의 사서삼경은 지금까지도 계몽주의 시대조차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사상가들과의 사상전을 펼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의 경전조차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전세계의 언어로 번역되고 선교사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가는 곳마다 문화와 정치를 바꾸어 나갔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다시금 좌와 우로 나누이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이념은 지나치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자유가 방종으로 치달으며 탐욕이 넘치어 환경을 훼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지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위험한 이념이다. 역사적으로는 오직 성경적 가치관이 꽃을 피우던 국가에서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일본만 빼고-일본은 독일식 군국주의로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 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임.)

사회민주주의는 이런 전통적이며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자유의 방종, 그리고 환경파괴를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규제경제, 보편적 복지, 공동생산, 환경보존 운동이다.(일명 좌파운동) 그러나 규제경제와 보편적 복지는 경제를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고(서구), 사람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말았다. (자유시장경제의 꽃은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꽃은 서구에서 피워졌다.)

그래서 지난 몇십년 동안 이 두 진영은 끊임없이 싸워 왔는데,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선은 좌우의 격돌이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이들의 멜팅 존이다.)

그러나 이 두진영이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회주의 진영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공산주의 진영은 이미 모두 지리멸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3국으로 분류되어 개발도상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남은 것은 우파든 좌파든 그들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버티고 있는 자들의 진정성이고,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력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왜냐면 오직 진실한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경고의 말씀대로 개인과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의 경건 때문에 나라들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세월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여전히 남은자를 부르고 계신다. 오직 남은 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저주와 형벌을 제하시고 세상을 버티어 낼 힘을 주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리더의 신학적 기초 성경: 로마서 10장 9-21절

Tag: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롬10:9-21)

신학의 중요성;성경에 대한 바른 읽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신학은 방대한 학문이라 모두를 배울 수는 없다.

신학의 숙제;
-신학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신학은 시대적 계시를 담지해야 한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1. 교회가 시대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교회가 시대적 계시를 담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 다른 핑계는 핑계일 뿐이다.

(오늘날) 교회 리더의 핵심 신학
1. 시대의 핵심 계명-(하나님사랑, 이웃사랑) (경건과 거룩성 유지에 필수
2. 신론-어머니 신학(여성상위, 카톨릭, 좌파운동-환경주의);갈등을 초월한 역사의 주인.
3. 그리스도론-다원주의;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4. 성령론-영성;채움의 영성

5. 교회론-다복;섬김을 통한 형통
6. 구원론-예정;조건적 예정
7. 종말-하나님의 나라;지금 이곳에 그러나 아직